

在濠 한국과학기술자협회 創立 호주 시드니서, 세계14번째로

지구의 남반구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동포과학기술자들이 지난 10월 31일 호주 시드니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재호한국과학기술자협회를 출범시켰다.

구소련의 독립국가연합에 이어 세계 열네번째로 설립된 이날 재호한국과학창립총회에는 주시드니 김영선총영사를 위시한 교민사회 유지급 인사 30명과 150여명의 현지 동포과학기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한국에서는 지난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에 읍저버로 참석하였던 재호한국과학기술자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鄭助英 과총상임부회장과(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부의장)과 李傑三 과총사무차장(동협의회 간사장)이 참석하였다.

창립총회서 김규진회장 선출

창립총회는 뉴캐슬대 홍성목교수가 준비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는데 이걸삼 과총사무차장으로부터 재외과학협회의 현황, 목적, 기능 등 설립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과 당부사항을 설명듣고 미리 마



◇김규진회장

련된 회칙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다음 임원선출에 들어가 초대회장에 뉴사우스웨일즈대 김규진박사(여, 47세, 화공)를 선출하였다.

또 부회장에 최영환(식품가공업대표)

와 김진우씨(뉴사우스웨일즈대교수/건축), 감사에는 원양일씨(호주연방정부 고주과관리공무원)와 송진근씨(뉴사우스웨일즈대교수/광물공학)가 선출되었다.

정조영 과총상임부회장 축사도

곧이어 거행된 창립기념식에서는 김영선 주시드니 총영사와 정조영 과총상임



◇재호한국과학기술자협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정조영과총상임부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내빈사직은 주시드니 김영선총영사(왼쪽), 이걸삼 사무차장(오른쪽) 등 30여명에 달한다. 내빈들

부회장, 이배근 한인회장등의 축사가 있었으며 金始中 과학기술처장관과 마이클 포더우스 뉴사우스웨일즈주 다민족문화부장관 등으로부터 보내온 축하메시지 낭독이 있었다.

한편, 정조영 과총상임부회장은 축사에서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동포과학기술자들은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를 통하여 상호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과기처와 과총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브레인플」 제도 및 명예과학위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재호과학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양국교류에 科協역할기대

호주의 과학기술은 지질, 광물, 금속, 전

자, 생명공학, 농·축산학 등에서는 이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거나 그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기타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의 상호교류에 적합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향후 양국간의 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에 창립된 과협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한편, 호주에는 3만5천여명의 우리나라 교민이 있는데 시드니에 대부분인 3만명이, 멜보른과 브리스번에 각각 3천명과 2천명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이 대졸 출신의 고학력 소지자이므로 제1세대에서만 약 1만명에 육박하는 이공계대학 출신 교포들중 상당수가 향후 활동여하에 따라 과협회원 가입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창립된 재호한국과학은 본부를 시드니에 두고 멜보른과 브리스번에 지부를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과총대표단은 이들 두지역을 둘러 현지 거주동포과학기술자대표들을 만나 지부설립문제도 매듭지었다. 또한 과협본부의 신임 회장단과는 연쇄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신생 재호한국과학의 육성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과협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각종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재호과학이 성장하여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적극 지원할 것임을 확약하였다.